

(탄소 다이어트)

광주시교육청 소속 정책연구동아리 '탄·다', 본격 활동

2021년 교육행정기관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정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생활 실천 방안 연구 중점

광주시교육청 소속 정책연구동아리 '탄·다(탄소 다이어트)'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생활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본격 활동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연구동아리 '탄·다'는 지난 3월 2021년 교육행정기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선정됐고, 광주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직원들로 구성됐다. '탄·다'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실천방안을 목표로 매달 1회씩 실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주 1회 채식실천, 쓰레기 줄

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기로 했다. 추후 실천 우수사례를 수집하며 독서토론 및 현장 탐방, 기후 활동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탄·다'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16일 광주환경공단 견학을 다녀왔다. 1977년 위생처리장 관리소로 시작해 2013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한 광주환경공단은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시업소 등 5개 사업소에서 하수처리, 위생처리, 음

식물쓰레기자원화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 내 제1하수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둘러본 '탄·다' 동아리 한 회원은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생활 속 실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책연구동아리 '탄·다'는 앞으로 시교육청 내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직원 인식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윤희기자



강진교육청, 강진학부모회 연합회 총회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 학부모가 함께한다' 주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은 지난 19일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 학부모가 함께한다'를 주제로 2021학년도 강진학부모회 연합회 총회를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관내 초·중·고·특·각종학교 학부모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학부모회 연합회 규정 개정 및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학부모회 연합회 연간 교육계획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임 연합회장인 박진숙 회장의 진행으로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활동해주신 전년도 연합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위축되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더불어 2021. 강진학부모회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원섭(강진고) 회장은 "강진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도록 학부모님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강진학부모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모든 아이는 우리아이! 학부모가 함께하는 주제 완성을 위해 ▲강진학부모회 연합회 규정 개정 ▲임원 선출 ▲학부모회 연합회 연간 교육계획 수립 ▲소통망 형성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최광희 강진교육장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참여가 있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것이며, 강진군의 동과 서, 읍면 단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지역속의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학부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화순교육청, 초 1~2학년 담임교사 기초학력 역량 강화에 박차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및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18시간의 집합연수 운영 및 원격연수를 지원한다.

본 연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기초

학력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하고자 기획했다.

초기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교육'을 주제로 3시간, 기초 수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주제로 3시간 집합연수를 진행한다.

또한 기초학력 관련 원격연수 15시간을 안내하여 이수함으로써,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담임교사가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는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본 연수뿐만 아니라 한글 미해독 학생 지도를 위한 실행 연수 10시간도 운영했다.

또한 학습코칭 강사 2명을 채용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찾아가는 학습지도도 하고 있으며, 광주교육대학교 연계 초등학교 예비교사 협력강사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초기 문해력 집합연수에 참여한 화순만연초 선생님은 "초기 문해력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연수 받은 내용이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보고 싶고, 재미있어 할 학생들의 얼굴이 기대된다. 특히,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 지도에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화순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습 부진 예방과 학생들의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개별화 지원, 교원 역량 강화에 힘써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교육청 Wee센터, 상반기 상담업무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

학교 적응력 높이기 위한 효율적 상담·상담업무 담당자들 역량 강화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20일 3층 초의선실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업무 담당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상반기 상담업무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행복한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상담과 상담업무 담당자들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비전다교육센터 조사라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이루어진 이날 연수는 비추프로젝트의

이해와 비추(미덕)카드를 상담기법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참석자는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을, 단점을 미덕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박진호 센터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업무 담당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란 교육장은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 힘든 마음을 함께하는 상담업무 담당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